

30장. 욥의 고백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조롱과 고난 (30:1-15)

30장의 전반부에서는 비천한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조롱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은 29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린 위엄과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되었던 영광을 이야기한 내용과 대비가 된다. 과거의 영광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욥은 자기보다 젊은 자들이 조롱한다고 한탄한다. 전에는 자기가 나타나면 젊은이들이 비켜섰는데 (29:8) 이제는 어린 자들이 자기를 기롱한다. 그 아비에게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조차 맡기지 못할 만큼 미천하던 가정의 아이들에게서도 욥은 지금 수욕을 당하고 있었다(30:1).

이어서 욥은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자세히 묘사한다. 그들은 메마른 땅에서 흙을 먹고, 짠 나물과 대싸리 뿌리같은 야생식물을 먹기 때문에 기력이 없어서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이다(30:2-4). 그러한 자들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쫓아내기 때문에 그들은 시내나 동굴이나 사막에서 산다. 그들은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쫓겨난 부랑자들이고 이름도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도 조롱을 받는다. 부도덕하고 미천하며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에게서 그들보다 더 부도덕하다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욥은 버림받은 자들 중에서도 버림받은 자이다(30:5-8).

욥은 “이제는” 하면서 자기가 그들에게 어떠한 조롱을 당하는지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 첫째는 그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에게서까지 자신이 쫓겨나고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 부랑자들이 욥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마치 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방에서 그를 둘러싸고 공격한다(30:9-10, 12-14). 그 결과 그는 공포 [놀람]에 사로잡혔고, 그의 영광은 바람처럼 흩어지게 되었다(30:15).

둘째, 하나님께서 욥의 ‘줄[활시위]을 늘어지게 하셔서 자신이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30:11). 사람들의 조롱을 묘사하는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곤고케 하셨다는 11절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조롱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욥의 좌절은 더 큰 것이고 아무도 욥을 도울 자가 없다. 욥은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점에 더 주목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 (30:16-31)

욥은 다시금 “이제는” 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묵상한다. 그는 큰 고통과 조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고 뼈가 쭈시고 온 몸이 고통 가운데 있다. 저녁에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여 죽은 것같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휘어잡고 진흙 가운데 던지시며 티끌과 재처럼 만드셨기 때문이다(30:16-19).

30:20-23은 29-31장의 중심에서 욥이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내용이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간절히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굽어보기만 하신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그 기간에 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에 불려서 소멸해 가는 길로 가고 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이 가는 곳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고 탄식하며 기도한다(30:20-23).

전에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욥은 손을 펴서 그를 돌보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를 위하여

함께 울고 근심하였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복을 기대하였을 때 반대되는 것을 받았다. 복이 아니라 화를 받았고, 광명을 기다렸으나 흑암이 왔다. 욥은 자기의 행위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대비하면서 호소하였다(30:24-26).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받지 못한 욥은, 홀로 버려져서 탄식하는 자기의 처지를 광야의 타조와 이리에 비유하였다. 속이 타고 피부가 검어지며 홀로 애통하는 그의 모습은 광야에서 홀로 부르짖는 이리나 타조와 다를 바 없었다(30:27-31).

묵상과 실천:

- 1.